

"당면한 고통은 수행의 깊이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장생활과 수행에 보다 더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IMF 이후 금융업계에 불어닥친 대량감염 한 파로 불자회 회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김윤하, 이하 금융단)가 10월 28일 한국의학은행 4층 강당에서 8개 금융기관 15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 금융단 불교연합회는 10월28일 한국의학은행에서 연합대법회를 봉행하고 금융구조조정을 불심으로 극복하고자 발원했다.

“구조조정 고통 불심으로 넘자”

금융단 불자회 지난 28일 연합법회 봉행 경남은행 지회 창립지원...보육원 후원도

이번 연합법회는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구조조정을 불심으로 극복하는 취지로 개최된 것. 금융단 불자들은 이날 동국대 현각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현각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연법에 의해 퇴출, 감원 등의 어려움이 내 몫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헤

쳐나간다면 더 큰 행복과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단은 이날 법회에서 실시된 안으로 모은 보시금을 11월 중순경 보육시설인 수원 행복관 집에 기탁하고 12일 창립 예정인 수협경북지회와 최근 불자회 결성 움직임이 있는 경남은행 불자회 창립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단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

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수협불자회는 12일 은행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갖고 수협경북지회 창립법회에도 동참기로 했다. 85년 한국은행불자회를 시발로 13개 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단은 연 2회 실시하는 연합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수련대회,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신행증진과 화합을 도모해 왔었다. 그러나 IMF 이후 회원이 절반 이상 줄었고 불자회 회장과 임원단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불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은행이회는 한국, 외환, 한빛, 서울은행과 수협, 농협 등 7~8개 은행에 불교할 정

도로 침체된 상태. 더불어 아직 불자회가 없는 주택, 국민 등 국책은행과 신한, 하나, 광화 등 후발 은행의 불자회 창립은 업해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윤하 운영위원장은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13개 은행 불자회 회장단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매달 1회 개최해 의견 수렴과 행사 결정, 불자회 미창립 금융기관 후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IMF 이후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부처님 믿는 마음과 연합회 내실화를 통해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영도구청 법우회가 9월6일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모습.

“봉사하는 부처님 제자 될래요”

부산 영도구 법우회(회장 류춘희 영도구청 청소행정과장)가 지난 9월 6일 창립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법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영도구 법우회는 영도구내의 영도구청,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우회로 부산시내 각 구 공무원 불자 모임 중 가장 뒤늦게 생겼다. 출발이 늦었지만 영도구 법우회의 각오가 각별하다. 조직 정비와 함께 영도구 사암연합회 회장 정각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회원 배가 운동에 나섰다. 부산시청 법우회 최익두 회장의 각별한 관심속에 창립을 맞게된 영도구 법우회의 현재 회원은 40명. 류춘희 회장은 “100명 확보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봉사활동을 펼치는 진정한 공무원 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도구 법우회는 기존 시청 법우회 법회와 더불어, 구 자체 법회를 3.5.9.11월 연다는 계획으로 조직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대전 정부청사 내 문화재청, 통계청 등 7개부처 150여명의 불자들은 10월27일 연합불자회인 반야회를 창립했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발족

지도법사 장곡스님...직능단체와 교류확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등 11개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에 연합불자회가 창립했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인 반야회 창립준비위(위원장 김창균)는 10월 27일 청사내 후생동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진하, 감사 주지 장곡, 대전사 주지 조일,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명호스님을 비롯해 인근 지역 사찰 스님들과 한국공무원불자연합

회 인흥부 사무국장 등 청사 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반야회는 대전정부청사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창립했다. 특히 문화재청 불자들은 문화재청이 그 어느 부처보다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개인 신행활동과 더불어 불교문화재의 관리·보호 등의 성보지킴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장곡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한 반야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단을 선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대전지역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운불련, 전국국교인불자회 충청지부, 포교사단 대전지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전지부 등 10여개 단체 회장단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야회 창립을 주도한 김창균(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씨는 “앞으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의 한 지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대전지역 직장직능 불자회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반야회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우리모임에선

서울시청 불심회 내소사 순례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장관)는 10월 29일 전북 부안 내소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내소사 주지 진원스님이 금강경 사구계를 설법한 이날 성지순례는 20여명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성북승무소 생태시 낭송회 문경 김용사와 대승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사진) 이날 성지순례에 참석

성북승무소 생태시 낭송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10월 25일, 26일 각각 두 차례

한 80여명의 회원들은 버스 안에서 생태시 낭송회와 환경관련 비디오를 감상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한전 반야회 예절특강

한전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10월 28일 미타사 정수암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정수암 주지 상덕스님이 사찰기본예절에 대해 설법한 이날 법회에서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불심을 다졌다. 또한 2일 분사 빌과 1층 세미나실에서 봉은사 허주스님을 모시고 초발심 자경문 강의를 들었다.

게시판

알림

- ▲김장나누기 기금마련 일일찾집=백전사회복지관은 18일 제 4회 자비의 김장나누기 기금마련 일일찾집을 제로원(경산 오거리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열었다. 일일찾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를 위한 김장지원에 쓰여진다. (053)811-1347
- ▲사랑의 모금함 설치운동=창달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의 모금함 설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모금함은 금천구 관내에 소재하는 병원, 제과점, 은행 등의 사업장에 설치되고 모금액은 관내 결식아동 및 무의탁 어르신들의 도시락 지원사업에 쓰여진다. (02)806-1376
- ▲연꽃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연꽃마을은 마포구 관내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병원, 건강체크, 수지침, 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02)365-3677

강좌

▲수화·발자암 강좌=삼정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의 수화교실(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자교사영어(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발자암(매주 금요일 오전

모임

- 10시 30분), 서예(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등 무료 사회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02)421-6077
- ▲불교의례의식=조계사는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의례의식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초·중·고·대학생이 강의한다. (02)720-1390
- ▲무료 가이름=금강정사는 무료 가이름 기초반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김정애씨가 강의한다. (02)893-2700
- ▲선운사 답사=터사라는 12일 선운사를 참배할 답사를 모집한다. 역사탐방연구회 영삼공사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에서는 모양상과 동리산전생애 생가도 방문한다. (02)725-1284
- ▲노인종합복지관 후원자=은평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작업환경 및 편의를 위해 공기청정기, 커피포트, 생수기 등의 물품을 기증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 ▲외국인 안내소 자원봉사자=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안내, 사찰역사소개, 불교상당을 해줄 영어·일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2-5292

奉 青潭大宗師 29週忌 追慕大法會 案内 行

청담 대종사 29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 시 : 불기 2544년 11월15일
월요일 오전11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문의처 :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3

불기 2544년 11월 1일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誥寺

회 주 이 혜 성
주 지 김 광 복 합 장

청담 문도회 일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는 1997년 제15회 동국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성물의 성분이 신원(배꼽)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응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골이 쪼개지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원)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서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체형사례**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골이 쪼개지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원)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서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2가지 이상 해당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